

르네상스 기크(geek)를 향하여!

테크노 기크(techno geek)란 말이 있다. 기술, 과학 등을 상징하는 접두어 Techno에 우리말의 '공부벌레, 괴짜, 열간이'와 유사한 뉘앙스를 가진 기크가 합쳐진 말로, 컴퓨터나 첨단분야에 전념하느라 세상물정에 어둡고 주위 환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스티븐 잡스나 빌게이츠 같은 IT영웅들 역시 대개 기크족이다.

사실 기크는 IT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존재한다. 또 누구라도 일상 속에서 몰입을 통해 여타의 일에 무심하고 소홀해지는 유사 기크를 체험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MIT의 슬론경영대학원의 교수이며 <직장의 장래: The Future of Work>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4)의 저자인 토머스 W. 멀론은 "만약 학생들이 기술 방면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위태로운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라며, "기술적 지식이 비즈니스나 과학적 지식을 결부시킬 수 있을 때 무한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테크놀로지의 연장 보다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더 큰 화두이기 때문이다.

지금 거울 앞에서 보라. 당신의 모습이 기크에 가깝다면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외모와 내면은 결코 떨어져 떨어 수 없는 실체와 그림자 같은 관계이며 변화의 출발점이다.

웃자리를 살펴보자. '겉' 보다 내실한 '속'을 중요시하는 건 옳다. 하지만 허술한 외모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을 수 없게 만든다. 사람은 정보의 80%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인다. 모 자동차회사의 광고카피처럼 'Look & Feel'은 분명 현대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시대에 보는 순간과 닿는 뚜렷한 느낌이 없다면 흘러가는 기억이 될 뿐이다. 실지로 누군가를 '멋지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능력도 좋을 것'이라는 무의식이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실력을 외적으로도 충분히 표현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티브하고 스마트한 인상을 주기에는 파스텔 톤의 푸른색 셔츠나 흰색에 회색이나 블랙의 가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셔츠가 좋다. 타이는 어두운 색보다는 최근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다소 원색적인 핑크나 옐로우, 그린, 실버 계열의 색상이 권장할 만 하다. 단 큰 무늬보다는 잔잔한 연속무늬가 한층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내므로 IT종사자의 이미지에 어울린다.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셔츠 칼라 스티치나 소매깃 등에 장식이 화려하거나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이 섞인 셔츠는 삼가는 게 좋다. 장식은 멋스러움은 있으나 신뢰감에는 방해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을 때에는 명도나 채도 면에서 유사한 색상을 매치하여 입음으로써 세련된 느낌을 주도록 하며 먼 데넘바지나 진(청)바지는 캐주얼의상에 해당되므로 비즈니스 미팅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구두는 정장을 하든 비즈니스 캐주얼차림을 주로 하든 반드시 두 쥬레를 기본으로 교대로 신어야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 뿐더러 가죽이 숨을 쉴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종종 뒷굽도 살펴보자. 심하게 닳은 굽은 거칠고 무성의하게 사는 사람으로 비춰 보일 수 있으니 유념하자.

어떤 분야건 전형적인 타입(stereo type)으로 평가받는 것은 불리하다. 기대할 것이 없거나 뻔하다는 인식을 주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내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다양한 업종과 계층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시대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IT분야도 다르지 않다. 오늘날 첨단을 가려는 테크놀로지스트(technologist)들은 단순한 기크가 아닌 '르네상스식 기크'로 거듭나야 한다. 자신의 영역 외에도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하며 그 무엇보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한다.

당신은 기크인가, 르네상스 기크인가? 바로 당신의 이미지에서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Users**



글 하 민 회 이미지 전략가 peep01029@lycos.co.kr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저서 : '이미지리더십'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이미지파워 진행
CEO President Identity 컨설팅
서울대, 연세대 등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강의